<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석유화학 시장의 겹경사?

끝이 없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던 석유화학 시장에 겹경사가 터졌다?
석유화학산업 속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어리둥절해할 것이다.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석유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시장에 경사라니 무식의 소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1999년9월 들어 전혀 즐겁지만은 않은 겹경사가 터진 것이 사실이고, 두가지 경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자못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나프타 가격이 톤당 150달러 이하에 거래돼 다행스러웠지만 원가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합성수지를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가격 때문에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차에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25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나프타 가격도 톤당 220달러를 넘어섰고, 곧이어 에틸렌을 비롯해 합성수지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에틸렌 가격이 톤당 600달러를 넘어선 것은 1995년 최호황기 이후 처음이며, 합성수지 가격이 톤당 700달러에 근접한 것도 2년이 지난 것으로 기억될 정도이다.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1994-96년 2년여 동안 호조를 보인 이후 1997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Taiwan에서 강도 7.1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연이어 강도가 상당히 높은 여진이 계속됨으로써 석유화학 플랜트가 손상을 입고 가동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마련됐다. 2년여의 불황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타이완의 지진피해에 과민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웠고, 지진발생 당시에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피해상황을 점검하면서 가격폭등을 학수고대하는 인상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될 정도였다. 일부에서는 타이완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큰 타격을 입었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정도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한국적인 정신적 병폐현상은 타이완의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이완이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국제관계 또는 국민적 정서는 둘째 치고서라도 상대방의 불행을 빌미로 이득을 챙기겠다는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절대 용납될 수 없는「극단적 사적 이기주의」의 표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실이「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정신적 불구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IMF 사태를 경험함으로써 그동안의 과오를 깨달았음직도 하건만,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주변의 여건변화에 기대어 이득을 보겠다는 이타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 지진에 따른 석유화학기업들의 피해규모가 국제적으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도로사정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항구에 인접해 있어 이 또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소식이다.
Formosa의 NCC를 비롯해 Chlor-Alkali, PVC 등 대형 플랜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남부 Kaohsiung 인근에 위치한 CPC 등 정유공장들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피해를 봤다는 보고는 없다. 다만, 진앙지에 가까운 Toupen 석유화학단지에는 약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타이완이 지진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정상을 되찾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 물론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행운 중 불행으로 인식되겠지만…
오히려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타이완이 일반 건축물은 물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시에도 내진설계를 충실히 이행한 까닭에 대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타이완의 조속한 재건과 한국 석유화학기업 및 일부 언론들의 정도경영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화학저널 1999/10/4>